

# 목포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재추진 '반발'

## 저지대책위 "시민협의 없는 사업 즉각 중단" 촉구

목포시 유달산~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재추진을 놓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녹색목포21협의회와 목포경실련 등 목포지역 14개 단체가 참여한 목포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저지대책위는 11일 "목포시는 고하도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목포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의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30년 전부터 여러차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목포시의 케이블카 사업 반대 이유로 경제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꼽았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운영되는 곳은 10곳에 이르지만 2~3곳을 제외하곤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건설한 뒤 적자 누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흥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또 개통과 동시에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통영케이블카의 고장 원인이 해풍으로 밝혀졌듯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중단했던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않은 채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적어도 시민들과 합의를 거치는 과정과 기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목포시가 조용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포시의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사업은 2010년 10월 일본의 목위크사, 일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JH가 참여하는 고하도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300억원 투자협약을 계기로 추진됐다.

하지만 회사측이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에 따른 어떤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류장 위치변경을 요청한 것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민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추진시키고 불 보듯 뻔한 적자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불 때 적자보전이라는 이면계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시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한국통합의학포럼 공식 출범

### 발전방향 논의... "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실현"

통합의학 분야의 정책 자문과 통합의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통합의학포럼이 11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에는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명중 장흥군수, 포립위원, 의료인, 시군 보건의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통합의학포럼은 양방과 한방, 대체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설립됐다.

통합의학에 맞는 진료과과 다양한 힐링 체험관 운영, 청소년 힐링 페스티벌, 건강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통합의학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명"으로 현장 의료인들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포럼 창립은 도가 추진중인 통합의학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의 첫걸음으로 포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여수시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2013 여수시 취업·창업박람회'가 11일 오후 진남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박람회에는 롯데캐피탈, 재원산업 등 70여개 기업과 1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인력채용과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인·구직 활동을 벌였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내버스 파업 '초읽기' 3사 노조 98% 찬성

여수시내버스가 전면 운행중단 위기에 처했다. 여수여객 등 여수시내버스 3사 노조는 10일 실시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수 272명 가운데 98%인 269명이 찬성, 파업을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전원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온 3사 노조는 추

후 협상을 벌여 타결되지 못할 경우 추석을 전후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3사 노조는 총 173대의 시내버스를 격일제로 운행하는 데 필요한 운전원이 346명이나 실제 운전원수가 283명으로, 6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격일제 근무에 차질이 생기자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사측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원 총원 요구를 거부하자 3사 노조는 지난 1일부터 173대 가운데 격일제 근무가 어려운 32대에 대해 이날까지 11일째 운행을 거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해남장터축제 내실화 다진다

### 시장투어·쿠폰발행 등 계획... 매출신장 기대

해남군이 장터축제 내실화에 나섰다. 지난 6월 시작했지만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통시장 활력 프로젝트로 지난 6월 시작, 7차례 열린 장터축제는 시장 상인은 물론 주민 호응을 받았다. 매회 관람객 600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농산물 판매로 이어지지 않자 군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우선 시장경영 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장투어를 통해 6000여만원의 매출 목표를

잡았다. 시장투어는 해남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고 전통시장에 2시간 이상 머무르면 상품을 사가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또 관광객에게 해남읍 5일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박철환 군수는 "장터축제로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며 "이제는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부 고객 유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터축제는 다음달 1, 6, 11일 3회 열린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 고흥서 서울아산병원 무료 순회 진료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고흥군 영남면사무소에서 무료순회 진료 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의료봉사에는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 15명이 참여해 첨단 장비를 갖춘 대형버스를 이용해 노인성 질환, 초음파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국내 최정상급의 의료진이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와 진찰, 검사, 투약과 원스톱 정밀검사를 위한 혈액검

사 등 수준 높은 의료혜택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은 "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면서 "서울에서 최남단 시골까지 내려와 무료로 진료를 해주어 정말 꿈만 같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서울아산병원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더 많은 고흥의 어려운 이웃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한려대교 조기건설 여수·남해공동추진위 출범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의 조기건설을 위해 여수시와 남해군이 공동추진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낼 계획이다. 여수시는 12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서 김홍석 여수시장과 정현태 남해군수를 상임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는 '한려대교 조기건설 공동추진위원회'를 하고 교량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낼 계획이다. 추진위는 양 시군 지역구 국회의원,

의회위원장,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모두 33명으로 구성된다. 한려대교 건립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02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1년 10억원을 들여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광주 CBS 목회자 설교 스피치 세미나

**주 강사**



김 상 복 목사  
-해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박 명 규 국장 (서울 CBS)



장 주 희 부장 (서울 CBS)

**일 시** 2013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장 소** 성림침례교회(각화동)

**강 사** 김상복 원목사(할렐루야교회)  
박명규 국장, 장주희 부장

**대 상** 교역자(목회자부부 및 부교역자, 전도사) 선착순 사전등록 우선

**사 전 등록** 9월 23일부터~

**문의 및 등록** 062)376-8501, 8700

**제공 내용** 참가비 무료 및 점심식사 제공

**시간계획**

10:00 여는 예배  
김상복 목사(설교자의 조율된 약기(딤후 4:12-16))

중식

박명규 국장(매력적인 목소리 찾기)  
장주희 부장(연단스피치)

17:00

주최 **광주 CBS**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